

우크라이나 공산당 해산 사태에 대한 IMT의 입장문

레닌의옆머리

2022년 7월 키예프 정권의 우크라이나 공산당 강제해산과 자산압류에 대해 IMT의 홈페이지 '맑시즘을 방어하며'에 기고된 글을 번역함. 본인은 특정 정파에 속해있거나 지지하지 않으며 단순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본 글을 번역하여 게시하였음.

<https://www.marxist.com/ukraine-communist-party-banned-by-hypocritical-zelensky-government.htm>

7월 초, 우크라이나 법원은 우크라이나 공산당의 강제해산과 모든 자산에 대한 압류를 명령했다. 이 반민주주의적 공격은 정치적 반대파를 분쇄하고 '공산주의'의 이미지를 러시아 제국주의와 결부시켜 더럽히려는 지저분한 계획의 일부다.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침공은 젤렌스키 정권에게 소위 유럽식 민주주의 가치의 수호자를 자칭하여 러시아 부역자를 축출한다는 명분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할 구실을 제공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러한 미명아래 수많은 정치 단체와 언론의 활동을 금지했다. 당연히 친러 활동의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그 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에 반대하기도 했다. 이전부터 설명해왔듯이, 우크라이나에서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은 전쟁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이야말로 키예프 정권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준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등대가 아닌 미국과 나토의 괴뢰로서 러시아 제국주의와 전쟁을 벌이는 반동 부르주아 민족주의자 정권이다.

우크라이나 공산당의 역사

우크라이나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탄압은 소련의 몰락 이후 시작되었다. 1991년 8월 독립된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시행한 조치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공산당을 정부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금지하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의회(라다)는 인민의 의사가 아닌 러시아를 지배하는 도당의 독재를 따르고 있었다. 그 전날 러시아에서도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 공산당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크라이나 대중의 진정한 의사는 이후 2년동안 나타났다. 수 많은 독립적 공산주의자 단체가 형성되어 불법적으로 활동했다.

이 중 일부 단체는 1993년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 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한 대회를 열었다. 새로운 당과 특히 청년 조직인 콤소몰은 1920년대 후반 스탈린주의 관료주의가 권력을 강화한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정치 활동을 보여주었다. 우크라이나 공산당 정치국은 스탈린주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고 이로 인해 나타난 왜곡이 있었다. 그럼에도 1980년대의 격동의 시기와 비교해서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10년은 인도주의적 재앙이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대중, 특히 자본주의적이고 반공적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중부와 동부의 주민들에게 소련에 대한 새로운 인기를 갖게 했다.

1998년 의회 선거에서 우크라이나 공산당은 25%의 득표율을 얻으며 역대 최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공산당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사회당은 16.5%를 얻었다. 하지만 그로인해 나타난 결과는 올리가르히의 패배가 아닌 공산당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자본가들의 연합된 움직임이었다. 당시 우크라이나 공산당은 민영화와 연금을 비롯한 국가 서비스의 제거에 반대하는 유일한 원내 정당이었다.

공산당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두가지 전술이 도입되었다. 자본가들이 장악한 매체의 반공주의 선전과 당 상층부에 동맹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당 관료들은 기꺼이 특권과 편안한 삶을 받아들였다. 결국 세계 경제 위기 직후의 몇 년을 제외하고 공산당의 지지는 계속해서 하락했다. 유로마이단 사태로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와 극우 세력은 공산당과 연합한 올리가르히를 축출했다. 공산당은 친마이단과 반마이단의 대안이 되지 못했다.

유로마이단 이후 탈공산화와 러시아의 침공

마이단 사태 첫 날 키예프의 레닌 동상이 철거된 것과 2015년 소련 상징의 불법화는 시작에 불과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극우 세력에 의해 공산당이 사방에서 공격받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가속화된 대응이 뒤따랐다. 전국의 공산당사가 공격받고 방화되었다. 활동가들은 거리에서 습격받았고 우크라이나 사법 체계는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다. 2015년 제정된 일명 탈공산

화 범에 따라 소련 시기 지어진 기념비와 공공 예술 작품들이 대규모로 파괴되었으며 우크라이나 공산당으로 해산되었고 "좌익 반대파"의 깃발 아래로 들어가 재조직 해야만 했다. 허약한 페트로 시모넨코 지도부와 당 활동가들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탈공산화법과 동상 철거를 저지하려고 했다. 5월 9일의 대조국전쟁 승리 행진은 국가와 극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진행되었다.

포르셴코의 뒤를 이은 젤렌스키의 당선은 극우에 대한 여론의 피로로 인한 국가 권력의 후퇴로 보여졌다. 심지어 시모넨코는 다시 TV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나자 젤렌스키 정권은 제국주의 지원국과 군에 침투한 극우 세력들의 압력을 받으며 점차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로 기울며 잠재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다.

러시아군은 위선적이게도 소련의 상징을 사용해 2차대전 당시 붉은 군대의 해방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 대중의 호의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러시아 제국주의는 소련을 되찾기는 커녕 전쟁의 파괴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 시모넨코는 5월 TV로 중계된 회의에서 푸틴의 침공을 지지하는 러시아 공산당의 입장에 동조하여 일반 당원들의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반은 진정한 국제주의에 대한 이해와 노동계급에 대한 믿음 없이 푸틴의 반동세력에게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관료주의적 행태이다. 공산당의 활동은 한동안 조용했지만 러시아 공산당처럼 당 지도부에 대한 내부적 반대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태에서 작동하는 동기에 대해 분명히 해야한다. 젤렌스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전쟁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거리낌없이 짓밟힌다. 또한 우크라이나 공산당을 러시아와 연관시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러시아에 대한 공포로 연결시키고 있다.

소련 시대 기념비와 장소의 이름과 예술품들에 대한 파괴가 증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쟁 전에도 헤르손 지역의 한 주민이 레닌과 스탈린의 어록을 인터넷에 게시한 죄로 5년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지난 5월에는 오데사의 한 여성이 소련 시대의 배지를 판매한 죄로 체포되기도 했다. 어쩌나 위협했던지 경찰은 증거품 사진에서 그 배지를 불러 처리해버렸다!

이러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탄압하려는 저열한 시도에 명백히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탄압받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좌익 활동가들과 연대하고 모든 구 소련권에서 혁명적 세력 건설과 계급적 연대를 촉구한다. 국가의 탄압을 반대한다! 국제적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한다! 민주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옹호한다! 국경을 넘어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군대를 건설하자!